



“들이 걸어요 ‘벚꽃엔딩’ 드리는 날”

원연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립캠퍼스에 벚꽃과 튤립이 만개한 가운데 학우들이 교정을 거닐며 봄의 경취를 만끽하고 있다. 한편 목포대학교 제3회 총학생회 시너지는 세월호 3주기 추모기간과 겹쳐 올해 벚꽃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페이스북 및 각 학과 단체 키트방에 공지했다.

(사진제공 목포대학교도서관 안준식)

학생회 없는 사회과학대, 정상화 시급

비대위 체제 운영 ‘비정상’
학생회 출범방안 마련해야

2016년 11월 23일에 치러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선거는, 시너지 총학생회의 모든 후보가 약 63.2%의 찬성률을 보이며, 당선됐다. 그러나 단과대학 중 사회과학대(이하 사과대)만이 회장 후보가 나오질 않아 선거를 못 했는데, 현재까지 그 자리가 공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과대에서 특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특선위)가 꾸려졌다. 이들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았지만, 후보자가 나오질 않아 선거는 무산됐다.

특선위의 공동위원장인 모은영 인문대학 회장은 “사과대의 재선거를 위해, 특선위가 꾸려졌지만, 후보자 모집 기간에 후보자가 나오질 않아, 특선위의 활동은 끝났다. 그리고 특선위의 활동이 끝나서 비상 대책위원회(비대위)에 권한이 넘어갔다.”며 “이후에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특선위의 활동이 끝나, 그 이후의 문제는 비대위가 관리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지금의 사과대는 9명의 비대위로 운영되며, 지적학과의 박민혁 위원장과 법학과의 최진선 부위원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총학생회와 전년도 사과대 학생회와 회의 후, 현 사과대의 각과 회장에게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사과대 출범식 또한, 사과대 회장의 진행이 아닌 비대위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고, 행사는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됐다.

이날 알려진 비대위의 존재에 대해, 대다수의 학우들은 모르고 있었던다. 그중 몇몇 학우들은, 갑자기 등장한 비대위의 활동 기간과 그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이다.



지난 4월 5일 비대위 체제로 열린 사회과학대 출범식.

비대위의 박민혁(지적학과) 위원장은 “비대위의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때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길게는 1년 짧으면 반년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가 선거로 이뤄진 게 아니라 지금의 비대위의 활동은 학생회장의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 사과대는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과대에 재학중인 B 학우는 “애초에 비대위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비대위가 아닌 것이다. 허허 권한대행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는 권력남용으로 보인다.”며 “단대운영에 집중할 것이 아닌, 학생들과의 소통과 대안 마련으로 하루빨리 새로운 학생회를 출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과대 회장 자리의 공석을 채우고 있는 비대위의 역할이 종종 최근 사과대 출범식 때 알게 됐다. 출범식이 아니었다면 존재 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물론, 잘하리라 믿지만, 이후에 만약 재선거가 없다면 그건 비대위가 가진 기능을 상실하는데 그 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또 비대위의 존재는 최근 사과대 출범식 때 알게 됐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가 2학기까지 운영이 된다면, 사과대도 다른 단과대학과 마찬가지로 00인의 날 등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행사는 작년 사과대 총학의 방식으로

로봇산업일자리창출센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협약

목포대학교 로봇산업 일자리창출센터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고용노동부 3개 기관은 지난 3월 22일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호남대 산학협력단, 목포대 산학협력단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발생할 미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피지컬컴퓨팅 에듀케어 인력양성 사업이다. 이미 관련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필요성을 인식한 미래부와 교육부가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선도적인 미래형 청의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대 유연재 로봇산업 일자리창출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 청년·여성 취업의 장에 요인을 극복하고 미래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열정과 실력을 갖춘 피지컬 에듀케어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 로봇산업 일자리창출센터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따른 ‘피지컬 컴퓨팅 에듀케어’ 교육생을 4월 중순부터 모집한다.

박정규 기자 akrwjdr@naver.com

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약정체결



목포대신문 514호 지면 안내

- | | |
|----|----------------------------|
| 3면 | 교양 / 지구살리기, 아직 늦지 않았어요 |
| 4면 | 특집 / 세월호 1089일의 여정 |
| 6면 | 기획 / 애연 vs 험연 토론회 |
| 8면 | 기획 / 탄핵이후 한중 관계·아시나요 ‘전안법’ |

김은혜 기자 yan2@naver.com

심상정·문재인 등 대선 후보 목포대 방문, 대화의 시간 가져



4월 5일 열린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 모습.

목포대학교는 4월 5일 7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이 미래다' 주제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최일 총장,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대표), 교직원 및 학생 등이 참석해 열띤 흥행 속에 진행됐다.

초청 강연은 목포대 출신 국회의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심상정 대선후보의 강연과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됐다. 강연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은 경제 사회적으로 불평



4월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역인재와의 대화' 모습.

등이 갑자기 심해져 삶의 미래를 개척하기 어려운 나라고 했던가"며 "성공이라는 단어가 청년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과감한 시정과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4월 6일 같은 장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목표가 된 만큼 우리 청년들은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과감한 시정과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문 후보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방 국립대학 육성, 지역 인재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4가지 분야로 나눠 재학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발언으로 문재인 후보가 지역의 인재에게 전하는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대회의 시간에서 문 후보는 현재 GDP의 0.8%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을 1%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학을 서열화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국공립대에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분야 민관은이 대학이 최고라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박지용 기자

입학본부, 70주년기념관 통합 이전



목포대학교가 지난 3월 22일 목포대 입학본부 사무실 전체를 70주년 기념관으로 통합 이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입학본부는 입학본부 장관, 입학 부본부장관, 입학관 리과장관, 입학관리 사무실, 입학 사정관실이 각각 대학본부 1층과 별관 2층에 산재해 있었다. 하지만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시 홍보 서비스 증대와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통합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한 공간 배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시 홍보 서비스 증대와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통합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이전한 목포대 입학본부는 70주년 기념관 2층 전체 사

무공간을 사용하게 됐으며 과거와 달리 입학관리과와 입학 사정관실이 사무공간을 통합해 사용하게 됨으로써 입학전형 및 입시 홍보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 됐다. 또한, 같은 층에 3개의 부서장관실(입학부본부장실, 입학 부본부장실, 입학관리과장실)이 나란히 위치함으로써 공간 활용성이 크게 증대됐다.

한편 목포대는 이번 입학본부의 통합이전과 맞물려 캠퍼스 명소화 사업으로 70주년 기념관 내 외부를 목포대의 역사와 발전상을 알릴과 동시에 포토존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거리가 있는 대학의 대표 명소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박지용기자 wldyd1258@naver.com

"목포대학교 미래 전략포럼 출범한다"

국가적 이슈·어젠다 발굴, 미래 전략 방안 도출

교직원·외부 전문가 구성 전략포럼 4월 닷 올려

목포대학교가 교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대 미래 전략포럼을 올해 4월 출범할 계획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목포대 미래 전략포럼은 대학의 미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국가적 이슈나 어젠다 발굴 및 미래전략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식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의장을 형성, 협치를 통한 범기반보수적 대학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목포대 미래 전략포럼은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대 미래 전략포럼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전략포럼은 대학의 미래전략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주제로 대학발전 전략과 제도 설정, 미래 교육정책 연구 및 평가, 지역사회 발전기여 방안 발굴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대비로 정의 융합인재 양성의 기반

조성과 미래가치 발굴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의 구심점으로서 목포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목포대 최현석 기획처장은 "목포대 미래 전략포럼은 대학 구성원, 동문, 시민단체 간 소통과 학제적 협력으로 협력적 소통구조가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아울러 성공적 포럼 운영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공감대 속에 목포대 종합발전 계획과 고유발전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국내 최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qkwidrb897@naver.com

승진교수 임명장 수여식 개최



목포대학교는 지난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4월 1일 자 승진임용 교수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총장 및 주요 본부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 9명(교수 승진 3명, 부교수 승진 6명)에 대한 승진 임명장 수여가 이뤄졌다.

이번 상반기 승진 임용자는 ▲교수 승진(기계 신소재공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 김천일 교수, ▲부교수 승진(친환경 바이오융합 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 김현수 교수, ▲교수(기계 신소재공학과) 김현정 교수, ▲교수(기계 신소재공학과) 박진우 교수 등이다.

목포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승진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위기이자 전환의 시점을 맞아 목포대의 장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대학을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맡은 바 일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qkwidrb897@naver.com

2017 퇴직교수 훈장 전수식



목포대학교는 지난 3월 29일, 본관 2층 총장실 내 회의실에서 윤형숙(고고문화인류학과), 박종철(도시및지역개발학과), 심구남(의류학과), 김천일(미술학과) 교수 정년퇴임에 따른 훈장전수식을 가졌다.

윤형숙 교수는 1992년 임용되어 정년퇴임까지 24년 이상 고고문화인류학과에 근무하는 동안 역사문화학부장, 인문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박종철 교수는 1981년 임용되어 35년 이상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에 근무하는 동안 후학 양성과 사회봉사에 열정적으로 매진했다.

심구남 교수는 1981년에 임용되어 35년 이상을 의류학과에서 근무하며 전공분야 교육 및 생활지도, 컨설팅을 실시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김천일 교수는 1981년 임용되어 35년 이상 미술학과에 근무하는 동안 학생처장, 미술학과장, 조형미술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국제 전시회 및 국내 실기 발표회 등을 개최했다.

박인서 기자 goodguyin77@naver.com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참가

목포대학교 청조일자리센터는 지난 3월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7'에 참가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최한 'SWEET 2017'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30개국 56개사가 참여한 국내 유사 전시회 중 최대 규모로 한전KDN 등 전력분야 공기업과 나주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의 성과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전기공학과 및 제어 로봇공학과 전공 학생 90여 명이 참가해 전시회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현장체험 할 기회가 됐다.

전시에 참여한 전기공학과 박기운 학생은 "전기 관련 에너지 기업들의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전시회에서 보고 느낀 경험이 취업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qkwidrb897@naver.com

◇특별기고 - 지구 살리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녹색목포21협의회 이해승 의장)

헐! 다 녹아 버렸네
이젠 어디로
가야 하지 ...



성장·개발 논리 밀려 환경보전 뒷전...오염 최악

매년 6월5일 '환경의 날' 정해 지구지키기 나서

비아흐로 우리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등은 역설적으로 환경 운동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69년 1월,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항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좌초되어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주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즈가

동참해라는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지구의 날의 중요성을 인식한지 50여 년이 지나서야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구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았던가를 저울에 올리면 알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인류는 1차 산업혁명의 동인이 된 증기기관 발명 이후, 석탄과 내연기관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를 사용하면서 에너지효율과 전신, 전화, 교통수단 등 상호연락체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계속된 농업 생산성 증가와 제조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인류는 풍요와 편리함을 더 누리게 되었다. 거기에는 의학의 발전이 가져다준 조기 사망률 저하, 수명연장 등으로 인해 산업 혁명 직후 10여년이었던 세계 인구가 이제는 70억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점진기술을 통한 고효율의 에너지원 확보로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도로의 증가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눈부시게 성장을 거듭하여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대도 없던 자동차가 현재는 거의 10억 대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많은 인구의 생존과 식도락을 위해 육우 집단사육의 증가와 식량 증산을 위한 간척 등으로 지구 표면은 50% 정도가 바뀌는 등 인류는 생존과 편리함을 위해 숨 가쁘게 달리면서 그 반대급부로 하나뿐인 지구에 많은 엔트로피를 축적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 등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구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

1차 산업혁명 전 약 80만 년 동안 280ppm으로 유지되어온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제 400ppm 가까이에 유탑하였고, 육우 등 가축 등의 증가로 인한 메탄의 발생은 715ppb에서 1,774ppb로, 이산화질소는 270ppb에서 319ppb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온난화와 관련된 미량기체가 대폭 상승하여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1°C 이상 상승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인 지구온난화로 지구 해수면 증가, 대기 수분함량 증가에 따른 히지케인,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 증가, 저위도의 말리리아 등 병충해 증가로 인한 환경 난민 발생 등은 직간접으로 인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온난화 주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양성피드백 영향으로 시베리아 등 영구 동포의 해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속에 갇혀있던 유기물들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산화탄소 및 메탄 발생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허파라고 일컬어지는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 감소 기능도 악화하게 될 것이다. 고온화는 삼림의 광합성 기능



1970년 4월 22일 춘분에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호소하자, 미국에서 2,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해 이날을 지구의 날로 정하고 지구 건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날은 지구의 날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UN의 인간 환경회의를 열어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하는 등 지구 환경을 보전해내는 노력을 촉발했으나, 이후에 성장론과 개발론에 밀려 20여 년 동안 지구촌에서 거의 잊히다시피 했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도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의정서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파리에서 그 전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과 미국 등이 참석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온도를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에 세계가

보다 호흡량을 늘어나게 하여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인류가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의 폐해는 돌아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50여 년 전의 데니스 헤이즈 학생과 같이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적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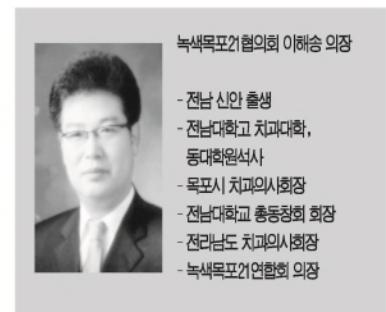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은 힘들고 거친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휴지 한 장도 열대우림 지역 나무의 벌목을 통해 생산되며, 쓰레기 처리 과정의 미세먼지 발생은 온난화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실천방법일 것이다. 공터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으려고 노력하고, 가전제품 및 컴퓨터의 전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절전하는 등 지구의 교통을 조심이라도 덜어보려는 노력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지구의 운명에 칭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지구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단체,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닌 지구인 모두의 손에 달린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의 온도와 인체의 체온은 같아서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인체의 온도 36.5°C 이상이 넘어서 1°C 올라가도 고열에 시달리고 모든 기능이 멀어지다가 3°C 이상이 되면 위험한 지경에 이르듯이 지구의 온도 또한 같은 이치인 것이다.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C 이상 더 상승했다고 한다.

만약 앞으로 2°C 이상 상승하면 우리가 체온 38.5°C가 될 때 고열 등으로 임상 고통(腥痛)도), 지구도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편안하고 질병 없는 이따금은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지구 온도 상승 2°C 이하 유지를 위한 지구촌 춘분의 4월 22일 지구의 날이 걱정과 한숨보다는 환희와 열정으로 가득 찬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리우협약에 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방자치 단체까지 확대해 시행하여 민, 관, 산, 학 모두가 합심하여 지구 환경을 지켜가는 취지로 탄생한 저희 <녹색목포21>은 이러한 실천 행동을 위한 계몽으로 수년 전부터 목포지역 초, 중등학교에 환경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지구온난화의 문제점과 지구 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 지역을 선도하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 목포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솔선하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실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 특집 - 세월호 1089일의 여정

숨을 쉬기에도 미안한 4월, 3년만에 세월호 돌아왔다

침몰에서 목포항 물에 오르기 까지 눈물로 얼룩진 3년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그날의 진실 함께 인양돼야



침몰 3년여만에 바다에서 인양된 세월호가 지난 4월 10일 오전 목포신항만 육상으로 옮겨져 거쳐 있다. 세월호가 보이는 활터 밖에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미수습자 9명의 사진이 놓여 있다.



4월 16일이면 세월호 대참사 3주기가 된다. 세월호가 침몰에서 인양되기까지 1089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많은 화생자를 내고도 아직까지 9명이 미수습자 상태로 수색중이다. 해수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을 동원해 미수습자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만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제주로 향하던 승객과 학생들은 실은 1,157명의 여객선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앞 북방 1.8 마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침몰이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그 중 324명은 제주도로 수하여 행을 끝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출항 예정시각이었던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에서는 안개가 자욱했다. 이 때문에, 많은 선박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오직 세월호만이 2시간 30분 늦게 출항했었다. 후에, 세월호는 급선회로 베이 이상이 생겼다. 그리고 사고 수역 담당 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인 '꼴玷다임'을 허비했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는 무책임함까지 있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기민히 있으리'는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 점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됐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른 장소였다. 그러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다.

>>>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대처

4월 16일 오전 7시 7분. 세월호가 진도 VT

S 담당 수역에 진입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 VTS는 세월호의 담당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내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을지도 눈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이다.

또한 해경은 세월호 내부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로 일관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부처 총괄업무를 시작했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여기에 경기도 교육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로 공분을 일으켰다.

>>> 세월호 구조과정 우왕좌왕

세월호가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다. 그러나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 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점도였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으나, 처음 수백 명의 구조 요원이 투입됐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데 그쳤다.

또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 이상이 해상에 떠 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해, 이 시기 구조장비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 백 투입은 4월 18일에야 이뤄졌고, 야간구조작업을 위한 오징어잡이선은 침몰 나흘째, 잠수부들의 이동을 돋는 대형비자선은 침몰 5일째인 4월 20일에야 뒤늦게 투입됐다.

>>> 많은 논란 이기한 세월호 인양

지난 2015년 4월 22일에 인양 확정발표 이후, 2년 만에 세월호 인양작업이 진행됐으나, 부실인양 논란이 발생했다.

이 문제에서 해수부는, 선체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해, 운송장비 투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등, 인양업체인 삼하이셀비지의 비용문제를 우려해 '대용량 운송장비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해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였다.

감사요구안은 이번뿐 아니라 기존에 제시됐던 해수부의 부실인양 논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인양업체를 상하이셀비지로 선정 할 당시에 대한 의혹이다. 상하이셀비지는 애초부터 기술력 논란이 있었고, 최근, 세월호 인양과정에서도 기술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많은 논란 끝에 시작된 세월호 인양작업은 ▽잭킹 바지선 2척 동원 ▽리프팅 빔과 쟈킹 바지선 연결 ▽수면상 13m 들어 올리기 ▽선

적 고박 및 부양 ▽목표 지점 이동 순으로 진행됐다. 후에 3월 24일 인양된 세월호는 7일 동안 작업을 마치고 31일 날 목포 신항으로 이동 됐다.

>>> 황교안, 유가족 면담 거부, 불통장치 어전

유가족들은 현장을 방문한 황교안대행에게 "평화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싶다."며 ▽선체조사에 유가족 참여 ▽목포 신항 내 현장 접근 보장 ▽미수습자 수색 최우선 시행 등 3가지 사랑을 제시했고, 신항 정문과 북문 앞에서 황교안대행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다.

후에,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을 주장해 온 유승민 후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 후보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건강을 확인하며 "정부를 믿고 맡겨 달라 (인양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며 늦은 인양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이 문제는 보수·진보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념의 문제가 아니니,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세월호 거치된 목포 신항 추모 물결 가득

세월호가 물으로 인양된 목포신항에는 추모물결이 가득했다. 광주여대에서 찾아온 학우는 "세월호 인양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나, 인양이 된 것 만으로도 다행이다. 미수습자가 모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을 순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이 안된다. 기간제 교사도 교사이다. 더구나 자신들은 구조될 수 있었으나 학생들을 구하려다 소중한 생명을 버렸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과도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신상 공개를 않는 조건으로 응해 주셨다. 단원고 한 학생의 어머니는 "세월호 인양이 3년이나 걸린 것이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정부의 느슨한 대책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참사로 인해 목숨은 잃은,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은 법을 바꿔놔서라도 그들을 순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재발방지 전문가 의견

세월호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는 "대형재해 때마다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상시적인 기금을 만들어 먼저 보상하고 추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칭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종길 한국 해운 물류학회 회장은 "연안선 선원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근무환경 개선책을 세우고 승무 기준과 선원 책임 교육 강화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난 4월 1일 목포 신항을 찾았으나 통제에 막혀 가기야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촬영 너머 깊이가 깊어 녹이 슨 세월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날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강하게 밀려들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미수습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기자가 만난 동문 / 이승현(미술학과·13)

“전공이라는 틀에 얹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경험하라”

미술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오늘도 학교를 찾아 바쁜 걸음을 옮긴다. 커리어우먼의 당당함과 수수한 미소가 매력적인 이승현 동문. 캘리그라피 작가 겸 창업동아리 ‘금학금학’의 디자인을 맡은 그녀를 지난 4일 목포대 후문 어느 카페에서 만나 대학시절 경험과 꿈,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진로 등을 들었다.

〈면접자주〉

안녕하세요. 지난 2월 목포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출 입생이며 목포대학교 벤처창업동아리 금학금학의 디자인 담당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Q. 학창시절엔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학창시절, 미술보다는 글 쓰는 것을 더 좋아해서 미술학과보다 문예창작과나 국문과를 가고 싶었어요. 당시,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글과 관련된 백일장 등에 서 상도 많이 타고, 국어 선생님께 시를 잘 쓴다며 칭찬도 받았죠.

Q. 문창과나 국문과가 아닌 미술학과로 전향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3 2학기 때였어요. 진로를 정할 시기에 이상하게 문예창작과나 국문과보다는 미술 쪽에 관심이 생겨요. 어느 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사이트를 보다, 베크나 작가의 ‘구름풀방’이라는 동화 앱화를 접했어요. 그것을 보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동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미술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웃음)

Q. 미술학과와 창업은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대부분, 미술학과와 창업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미술학과와 창업은 가깝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없이 탄생하는 제품은 없거든요. 우리가 입는 옷이나 신발, 가방과 같은 모든 제품에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미술과 창업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하나의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Q. 금학금학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금학금학 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대표를 맡은 이천 슬 학우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어요. 첫 만남부터 동아리의 가입 권유를 받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놀랐습니다(웃음). 하지만 자료를 읽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력적이었어요. 시리지는 한글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해서 알린다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치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소굴에 들어가고 싶은’ 호기심으로 금학금학을 함께 만들게 됐어요.

Q. 동아리에서 하고 계신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동아리에서 소멸위기 언어를 모티브로 캘리그라피를 써서 어떠한 모양이나 색, 문구 등을 만드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Q. 많은 대외활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건가요?

많은 대외활동은 저에게 모두 값진 경험이었죠. 굳이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지난 10월에 있었던 전남 대학 벤처 창업대회가 기억에 남아요. 다른 참가 동아리들은 10년 이상 오래 운영된 팀들이 많은데 저희는 신생동아리라 불안하고 굉장히 떨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상을 하게 되고, 다른 팀들에 비해 심사위원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뿌듯했어요. 한글로 디자인하는 것이 제작하는 큰 도전이었는데, 이런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의미 있었던 경험 이었습니다.

Q.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오늘 걱정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명언이 있는 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매일 조금씩 해내지 않으면 무언



가를 이룰 수 없어요. 미라톤을 할 때 꾸준한 페이스 유지가 필요하듯이 삶을 살아갈 때도 자기 자신에게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미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대학에서는 자기 전공에 갇혀 그 시간표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경영대 친구들과도 어울렸어요. 그러면서 디자인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하며, 제 분야를 한층 더 넓힐 수 있었어요. 요새 학교에서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 혁명을 바라보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각을 넓혀 응합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대외활동에 도전하다 보면, 더 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화된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웃음).

박정규 기자 akrwjdrb897@naver.com

◇ 서평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2007 | 랜덤하우스코리아 | 도종환〉

시를 쓰는 게 취미 중 하나인 나는 시를 잘 쓰려면 필사를 열심히 해야 했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시집 한권을 완전히 펼쳐졌다. 그 시집이 바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다. 시라는 것은 간단히 읽을 수 있는 것이다만, 어디에서도 읽을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시인의 대표적인 시에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러한 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 시인의 다른 시를 읽으면서 “이런 시도 있구나.”를 느끼게 됐

‘시’로 위로하기

고, 오히려 시로 하여금 내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었다.

‘시를 필사하면서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라는 건 별로 느낄 수 없었는데, 마지막 표지에서 시인의 말 중 이런 말이 있었다. ‘꼭마른 이에게 건네는 맑은 물 한 잔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는 한 장의 엉서이기를 바랍니다. 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다가가는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친 이 옆에 놓여있는 빈 의자가 된 디뎌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시를 처음부터 읽어보기 시작했다. 시를 읽으면서 처음 필사를 했을 때,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고 시집 자체가 시화선집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 삽입된 그림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 책에는 ‘저녁 무렵’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내용 중 ‘사리진 것들은 다 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과, ‘거기서 부터 또 시작을 해야 할 사랑이 있다.’는 표현이 있다. 나는 괴거,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奕

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했었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내 스트레스가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다. 시로 위로도 많이 받았고 사람이 아닌 글로써 위로를 받는 경우도 처음이라 신선하게 시를 바라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시집을 사고 읽는다. 그 중 시화선집은 시의 내용과 그림이 절반씩 비중을 두는 것으로 봐,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시의 내용 보다는 그림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림이 완전하게 한 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주는 느낌이 덜 할 수도 있다.

또한, 시인의 대표적인 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집의 다른 시를 처음 접하는 경우,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이런 반면에 시집에 시가 큰 주제의 틀 안에 비슷한 시를 나열해 놓았기에 시를 읽으면서 비슷한 시人们对 대안의 느낌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도 있어서 좋았다. 이 시의 그림을 담당한 송필용(화가)은 이 시집을 화가에게 세상의 많은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화가를 회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시라는 것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쓸 때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를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또 쉽게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서 더욱 이 좋은 것 같다. 또한 시 자체가 자율성이 있는 시로 되어있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읽지 않아도 된다. 시를 자작하기에도 좋은 자료로 활용 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나는 글을 잘 쓰지 못한애도 불구하고, 시집을 추천하는 이유는 시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시집을 접하거나 읽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한다. 시는 오랜 시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왔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갈 것

이다. 사회에서 주는 스트레스나 상처 등을 시로 하여금 마음을 달랠 때, 시로써 자신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변형준
중국언어문화학과·16

◇ 토론 / 애연 vs 협연

늘어나는 금연구역, 좁아드는 흡연권리



흡연구역의 축소에 대한 문제는 일종의 법률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애연가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는 (국민 건강증진법)과 상충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흡연과 협연 같은 것은 교내라고 다르지 않다. 기숙사 흡연문제, 건물내 흡연문제, 건물 주변 흡연문제 등 여러 장소에서 흡연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 수업 중 쉬는 시간에 잠시 담배를 피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흡연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문이 잠겨 그 시간에는 담배를 끊을 수 없다. 또한 기숙사 내부에 흡연구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기숙사 고층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불편이 더욱 커진다.

시니어 총학생회는 "교내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흡연구역을 흡이고, 확실한 흡

연 금지 구역을 표기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공약 선언후 실제 교내 많은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가 붙어 있다. 또한 계속해서 대두되던 기숙사 간접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건물 입구에 있던 흡연구역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러한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크고 작은 갈등해결과 대안 모색을 위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 마련했다. 목포대신문사에서는 지난 4월 10일 흡연자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자원학우들을 모집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비흡연자는 장정규(국어국문학과·14), 유재형(물리학과·16) 학우가 참석했고, 흡연자는 김형훈(국어국문학과·17), 김해정(전자상거래학과·17) 학우가 참여해 선행된 토론회에 대해 흡연자 팀과 비흡연자 팀이 번갈아 답변했다. 토론 내용을 발췌해 기관없이 자연에 풀기だ.

(편집자 주)

토론 사회 : 박인서 목포대신문사 기자

흡연자 층 토론 참가자

- 김형훈(국어국문학과·17)
- 김해정(전자상거래학과·17)

비흡연자 층 토론 참가자

- 장정규(국어국문학과·14)
- 유재형(물리학과·16)

학내 흡연율 30%... 애연-협연 양측 의견 팽팽 부스 확대 설치·상대방 배려 의식 제고 중요



목포대신문사에서는 지난 4월 10일 학생회관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크고 작은 갈등해결과 대안 모색을 위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 마련했다.

부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고, 또한 실리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형훈: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일종의 반항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흡연자들은 그 부스를 통해 자신을 치우친다는 인식을 개선해야하는 문제라고 봐요. 금연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흡연자에게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식으로, 웹페인 등을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 건물 내 흡연문제는 단순히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2014년 학생회관 옥상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유의한 해결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형: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네요. 흡연율을 낮출면서 국가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건 노동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흡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흡연 문제로 인해 국가 재정이 사용되는 등 흡연 문제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훈: 그렇게 큰 시야에서 보면, 흡연자는 전체의 20%로, 노동력을 따지려면 흡연보다는 술문화를 따져야 할 것 같네요.

사회자: 흡연 부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알리드립니다. 얼마 전 국가에서 30억을 들여서 전국에 흡연부스를 설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많은 홍보가 되지 않고, 그 위치도 알리지 않아서 사실상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흡연자를 또한 이 흡연

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회장실이라면 가능하다는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정규: 제 생각에는 흡연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흡연자에게 흡연과 흡연후 뒤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식으로 말이죠. 흡연 의무교육 수료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김해성: 좋은 생각이네요. 몇 년 주기로 경각심을 하게끔 하면 더 좋고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필요한 과정을 축실히 하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연구역을 확장한 것에 대한 결과, 간접흡연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는 국가적인 통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물 내 간접흡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사실상 가장 간접흡연을 많이 접하는 장소는 길거리입니다. 교내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특히 "길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흡연 구역은 없으면서 금연구역만 지정된 뒷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 총 학생회에서 학교 전체의 흡연문제에 대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구역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연구역 확대라는 대응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형훈: 사실 "길뱅"이라는 것은 비흡연자가 지나다니는 길에 흡연자가 있는 것만으로

도 충분히 길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비쁘고 어디 가야하는데 담배는 피우고 싶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흡연구역을 늘리는 것은 절대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재형: 일단은 "길뱅이 되었나?"라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맞지만 건물 내, 건물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점이랑, 그렇다고 멀리 가서 담배를 피우기는 귀찮다는 점. 또 파로 담배를 피울 장소가 없다는 점도 적용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흡연구역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늘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비흡연자가 흡연구역을 피해가는 식으로 간접흡연이 줄어들겠죠. 비흡연자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게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학생회가 내세운 공약의 경우, 일단 전여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 막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을 못하게 막는다는 점에서, 흡연자 분들이 사실 어디선가 흡연을 할 것이 당연한데 학교 내 흡연 가능한 지역을 없애 버린다면, 그분들은 지하주차장과 같은 음지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단속하기 힘들어지겠죠. 당장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안정성이 관해서도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김형훈: 사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금연구역을 늘리나, 흡연구역을 줄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훈: 모두가 흡연에 고통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별것 없거든요. 흡연자 분들은 건물을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재형: 사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 가 되는 거거든요.

김해성: 동의합니다. 사실 서로 기본만 지켜 충분히거든요.

장정규: 제가 담배를 피워 봤는데, 사실 이게 끊기 어렵고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비흡연자 분들은 이를 유의 하시고 흡연자 분들께 이성적으로 대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흡연자 분들도 감정적이기 보다는 배려하는 식으로, 지킬 것은 지켜주셨으면 하네요.

토론은 1시간정도 이어졌으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통된 의견은 한 흡연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내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내 흡연율은 약 30% 정도로, 총학생회의 이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인서 기자 goodguin77@naver.com

사설

화해와 용서, 반성과 참회는?

근래에 전두환·이순자 부부의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우리 근대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과거사 정리 및 적폐 청산의 미완성 문제를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광복 이후 전일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던 친일 세력에 의해 무너져 있었고, 4·19 혁명에 의한 부조리와 정치적 부패의 평산은 5·16 군사 쿠데타로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하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발생의 원인이 된 또 하나의 적폐인 신군부라고 불리운 세력의 내란과 반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를 훌륭하게 단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전두환은 자신의 4·13 헌법 조치에 분노한 국민의 6·10 항쟁으로 도출된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인 6·29 선언이 마

치 자신의 업적인 양 얘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에 기여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민주화된 나라에서의 최근 10여 년은 어떠했나? 일반 서민들은 외면한 보수 정권 10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친이·친박 대결, 소위 '강남 부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이명박의 무리한 대강 공사와 측근 비리, 박근혜의 불통 인사와 증세 없는 복지 실패, 적폐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와 메르스에서 드러난 원칙과 대책 없는 정부의 모습은 정말 기억하기 싫은 현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의 탄핵과 더불어 떠오른 세월호의 모습에서 과거사의 정리와 이러한 적폐의 청산에 대한 기대를 해보지만,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사면 얘기가 논란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번에도 난망한 것인가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나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도대체 그 뜻은 언제인가?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유태인과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올바른 적폐청산의 기회를 빼앗기게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통합과 국민 화합도 중요하고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화해와 통합은 오히려 미래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며 더 나은 미래로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두환 회고록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잘못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없는 그 어떤

정치적 언행은 감안이 삽이며 모두 가짜일 뿐이다. 우리 근대사에는 도대체 반성과 참회라는 게 없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회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며 살아왔다. 참회의 역사를 만들지 못함은 결국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사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반면교사의 효능을 알게 된다. 전직 대통령 혹은 그에 대응한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에 대한 특별 사면은 반드시 특별한 과정과 추상같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의 찬성 없이 정치적인 고려에서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온전한 국가 기강, 정의롭고 풍랑 있는 사회를 만들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물론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칼럼

김 선희(체육학과 교수)

펜소리

김 은혜(편집국장)

인사 바이러스

나는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었나

교정의 벚꽃이 활짝 핀 꽃망울을 터뜨려 멋진 꽃구름을 만들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봄날의 따스함이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활기찬 기운을 감돌게 한다. 겨울 동안 입었던 두꺼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한껏 멋을 내고픈 요즘, 아침저녁 찬 기운은 님을 시샘하듯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설립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새 학기에 여기저기서 출제자리들과 졸록자리에 훈성이 온 것을 실감하며 몸과 마음을 움츠리들게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정신없이 3월을 보내고 주위를 살펴보니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 오랜 기간 유학을 했다는 복학한 학생들을, 다른 학교에서 편입한 학생들, 멀리 다른 나리에서 유학 온 학생들, 새로 임용된 교수님들… 많은 사람들이 목포대 교정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일부는 목포대가 매우 낯설 것이고, 일부는 예전과 다른 학과 분위기, 학교 분위기가 어색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낯설고 어색함이 삶에 나흘로 땅에 놓고 고장을 걸어 다니거나, 꾸이에 이어폰 찾고 나만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스마트 폰을 벗 삼아 시간을 보내거나, 혼숙 문화의 일원이 되길 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학기의 이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를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꽃처럼 화기애애하고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꽃과 나무도 새싹을 틔워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교정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봄날의 따스함과 생기를 맛껏 누려보면 어떨까? 교정에서 만나는 학생들끼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서로 반갑게 인

사를 나누는 인사 바이러스를 퍼뜨려 보자. 감기가 바이러스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듯, 서로 서로 나누는 인사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교정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안녕!, 교수님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어 보자. 환절기라 감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움츠려 있지만 새싹의 괴로운 기운을 인사에 담아 전해보자.

인사에는 많은 것이 담겨있다. 인사는 관심의 표현이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어찌다 마주치는 선배들에게도 인사 한마디는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전하는 표현이다. 인사는 관계의 시작을 알린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학생과 교수의 관계를 이어준다. 인사는 소통의 시작을 알린다. 인사는 주고받는 것이다. 인사하는 짧은 시간에 눈으로, 귀로, 표정을 통해, 소리로 상대방이 우울한지,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있다. 한 마디 건네는 인사에서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오늘 기분이 안 좋은지, 어디 아팠지, 인사를 하면서 물을 수도 있다. 나중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관계의 확장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서로 대화가 오기면서 소통을 하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감기에 비타민 C가 필요하듯, 새 학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사 바이러스이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방도 인사를 하게 된다.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다. 인사바이러스가 여기저기에 퍼져 서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넓히고 소통하여 따뜻함과 활기참과 애정이 스며있는 봄날의 교정을 기대해 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3주가 되어 간다.

그리고 아직 기족 품으로 돌아 가지 못한 9명의 사람들도 남아 있다. 세월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81일 만에 인양이 완료되었다.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가. 유가족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지는 못 하지만, 1081일의 시간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슬픔을 기습에 물고, 그 현실과 쌔우기는 고통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가늠도 가지 않는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4년 공증과 죄악의 보도 '전원 구조'라는 오보.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언론은 바뀌지 않은 듯 하다. 지난 3월 28일 언론은 '세월호 미수습자 추정 유골 발견'이라는 기사를 썼다. 그러나 그 기사는 오보였으며, 추정 유골은 등물의 배인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필시 잔인한 희망고문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전원 구조'라는 기사는 '저널리즘'을 환기시켰고, 지금도 요구되는 바이다.

어렸을 때 나는 시를 쓰는 것이 좋았다. 그것은 더 나아가 내 꿈을 시인으로 만들었으며, 후에는 작가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현재, 내 꿈은 기자이다. 이 꿈을 갖게 된 것은 아마 2014년, 고4 때였을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많았다. '왜 노인들이 괴짜를 주우며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가.', '왜 한국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인가.'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리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당일에는 무신경했었다. 전원구조라는 오보에 속아, 안일했다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오보란 것이 알려진 후에는, 매우 화가 났던 것 같다. '왜 국가는 미수습자가 존재하는데 방치하고 있는가.' '왜 유가족들은 시체팔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하면서 그렇게 나는 분노했다. 그래서 나는 촛불을 들었고, 충장로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수능이 끝난 후 나는 그 모든 활동을 멈췄던 것 같다. 여전히 그 일에 있어서는 화는 났지만, 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알비를 시작했으며, 수십 개씩 몰라오는 기사들에 지쳤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당시 어떠한 우울감에 취해 있었다. 모든 활동은 멈췄지만, 노트리본을 넘기는 그 우울감과 나는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우울감에 취해 있었다. 그 지표들을 멋대로 내 양심이라 취했으며, 나는 자민해 있었다. 스스로를 '깨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남들과 다르기를 바란 것임도 모른다.

결국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면서, 왜 나는 자민했을까.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슬픔을 느끼고, 그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부끄러웠다. 가수 안치환이 부른 '자우'라는 곡의 가사 중 이 구절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자주여 민주여 통일이여 와치면서 속으론, 속으론 제 이속만 차리네...' 디시금 부끄러웠다. 이 가사가 미처 내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했던 것 같다.

누군가는 양심을 '손해 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또 누군가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하는 마음'이라 한다. 이 참사는 전자의 문제일까 후자의 문제일까. 사실 잘 모르겠다. 대학에 들어오면서, 그 슬픔을 잊고 살았던 것이 내 양심을 짜르고 있다. 나는 한동안 위선자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글로 인해, 추모를 강요하고 슬퍼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저 과거의 내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고 싶을 뿐이다.

◇ 특별기고 - 탄핵 이후 한·중관계 (중국언어문화학과 임춘성 교수)

탄핵이후 한중관계 : 발란반정(撥亂反正)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 혁명은 나를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혁명의 80년 대'에 후배들과 함께 공덕동 로터리와 남대문로 등을 헤매며 맡았던 최루탄 가스가 '1987년 체제'로 귀결되었던 기억이 새롭게 다가왔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동료들과 후배들과 그리고 마침 한국을 방문한 외국 친구들과 광화문 네거리 현장에 나가곤 했다. 한 개인에게 30년은 반생(半生)에 꼭 있지만, 역사에서는 한쪽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87년이 그려졌듯이 2016년 가을부터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가 단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1987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촛불 혁명을 진정한 '발란반정(撥亂反正)'의 단계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상발 무페(Chantal Mouffe)는 근래 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실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녀가 보기 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인민 민주 원칙'을 위해 '대의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제'가 '인민 민주 원칙'을 억압하는 현상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민주주의의 역설'이라 명령했다. 우리는 이 역설을, 인민이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도자를 당선 이후 인민의 뜻을 대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은 어지러움이다. 마침내 우리는 '어지러움을 평정(撥亂) 했다'고 한다. 이제 '정의로 돌아가야(反正)' 한다.

철학과 정의가 없고 일발의 양심과 상식도 없는 지도자로 인해 일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가운데 최근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THAAD) 문제로 인해 악화 일로를 달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

는 최근 내가 직접 체감한 중국의 사드 분위기를 소개한다.

나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목포대학과 오랜 교류가 있는 산동(山東) 성 엔타이(煙臺)대학의 초청을 받아 특강을 다녀왔다. 학기 중인지만, 최단 시간으로 짧은 3박 4일 동안 사드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도착 첫날 국제처에서 안배한 환영 만찬을 마친 후, 5년 만에 방문한 엔타이대학 부근의 변화된 모습도 볼 겸 산책을 나기려 하니 국제처장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귀담아듣지 않고 속소에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산책하러 나오니 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득불 교문까지만 가서 바깥 풍경만 일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별일'은 두 번째 특강을 마친 마지막 날 일어났다. 국제처의 환송 만찬을 마치고 목포대 교환학생들을 만나 학교 앞 식당에 들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학생이 것 기락을 떨어트려 주인에게 하나 더 달라고 하

자, 그가 갑자기 험상궂은 표정으로 "당신들은 한국인이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 장면은 수습되었지만, 주인은 학생의 중국어가 외국인 같아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주인장의 질문에, 우리 중 누군가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이찌란 말이오?"라고 대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 만난 많은 중국인이 사드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와 대동소이했는데, 중국 정부는 사드에 대한 비판 논리를 만들어 그것을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 조선의 문제다. 그런데 미국은 북핵 억제라는 명목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여 한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사드는 소프트웨어만 조정하면 중국 대부분 지역을 겨냥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미국을 도와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중국의 오랜 친구고, 최근 경제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가지고 있고 양국 교류는 무궁하게 발전할 것인데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는 양국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양국 교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동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금지하는 한한령(韓韓令)을 발동시키고 있다. 한한령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비공식적인 조치다. 하지만 한중 양국의 정부와 국민은 그것이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다. 한한령이 작동하니 한국 정부와 국민도 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환대는 감사를 넣고 다시 환대로 돌아오지만,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심상이다. 그리고 오해의 증폭은 폭력으로 귀결되거나 마친다.

이제 우리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정의로 돌아가는 '발란반정(撥亂反正)'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세월호의 진상 규명과 눈앞에 다가온 대선은 우리의 정의를 회복하는 첫 단초다.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한 1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나는 부디 중국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우리를 대표하기에, 나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임춘성 교수
(중국언어문화학과)

◇ 기획 - 아시나요? 전기안전법

소비자안전 강화 위해 법 개정 불구 영세사업자 부담 급증...대책 세워야

전안법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을 1월 실시 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논란의 중심이 된 법이다. 1월 28일자로 전안법이 시행(1년 유예)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옷, 신발같은 의류집합과 가격이 치솟게 된다. 동대문 영세상인들 다 망한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전안법은 무엇인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안법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아예 없던 법은 아니다.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의류를 포함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전기전자, 온열의류 등 '전기+공산품' 성격의 제품이 많아지면서 통합관리를 하고자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한 법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거쳐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법이다.

그 결과 이 법은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사전에 알 수가 없었고, 유예기간도 모른채 지나갔다. 급작스

럽게 오픈마켓에 법안 관련 공지가 올라오면서부터 사업자들이 사태파악에 나섰고, 구매 대행사업 특성상 컴퓨터, 인터넷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보니 다른 업계에 비해 빠르게 전파, SNS로 꽤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 전안법 시행에 대한 반발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의류발 등)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안전인증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그간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제조업체의 안전인증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규제대상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기존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규제하지는 않았다.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웃은 여리자지 원단과 단추, 버클, 지퍼 등 다양한 장식품이 사용되는데,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인증' 해야 할 품목이다. 의류 인증 비용이 원단 품목당 6~7만 원인데, 대기 업을 제외한 의류상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패션잡화 쇼핑몰을 운영중인 A 학우는 "청년 일자리가 시급한 지금의 사회에서, 패션과 관련된 청년 창업자의 수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신진 디자이너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안법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청년 창업자의 미래와 패션업계라는 큰 시장의 성장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신진 브랜드나 소규모의 의류업체들은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이가 시행될 시 가격은 오를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연히 대기업의 상품을 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문제작으로 만들어지는 핸드메이드 상품, 시장은 대폭 하락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 법 안으로 인해, 패션 산업 성장이 저하될 우려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대 A학우는 "전안법은 판매자와 생산자에게 KC마크 강제인증 요구를 하고 있어 많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인증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아길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공정회도 거치지 않고 국민들 몰래 개정돼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불가도 보람릇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네이티즌들은 다음 애고라 이슈 청원을 비롯해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전안법 유예가 아닌 폐지를 외치는 서명운동을 진행, 현재 14만여 명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는 전안법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법률에 긍정적 반응보다 부정적 반응이 많은데 그 중 소비자들이 상승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전안법은 1년 유예 기간동안 소비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기행 기자 gawon770@naver.com
<참고>박병규변호사법령전안법에대한이해



지난 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기안전법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 토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